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담당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010-2061-5034 국민대책회의 이원호 국장 010-4258-0614)

제 목 4/4-4/5 세월호 시민가족 도보행진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5. 4. 4. (총 7쪽)

보 도 자 료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시민 가족 도보행진

행진 : 4월4일(토) - 4월 5일 : 안산 합동분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자회견 : 2015년 4월 4일 (토) 오전 8시, 안산 합동분향소

국민 촛불문화제 : 2015년 4월 5일(일), 오후 5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인양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4월 4일(토) 오전 8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시민 가족 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10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1박 2일간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한 뒤, 4월 5일(일) 오후 5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4/4 행진 출발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4/4-4/5 시민 가족 도보행진 개요
▣ 붙임자료 3.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시민 가족 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

- 일시 : 4월 04일(토) 오전 8시
- 장소 : 안산 합동분향소
- 주최 및 주관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1) 4·16 가족협의회 대표자 발언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3) 실종자 가족 인양 촉구 발언
4) 시민 참여자 발언
5)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출발선언문) 낭독

- 세월호 가족들과 참가자들 결의를 보여주는 의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참가자 및 진행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2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시민 가족 도보행진 개요“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1. 출발 및 도착

- 출발 : 2015년 4월 4일 오전 8시 기자회견, 오전 10시 분향소 출발
- 도착 : 2015년 4월 5일 오후 5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 문화제

2. 상세 일정

○ 행진 1일차 : 4월 4일(토)
08 : 00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 /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앞
10 : 00 행진시작 / 세월호 합동분향소-단원고
10 : 30 단원고-안산시청-스타프라자사거리
11 : 20 스타프라자사거리-월파공원 앞-안산청소년수련관-부곡동공원
12 : 20 점심식사 / 부곡동공원
13 : 20 부곡동공원-택삼주유소-하늘공원-수암동파출소
14 : 20 수암동파출소-목감사거리
15 : 50 목감사거리-박달주유소
16 : 50 박달주유소-덕안주유소
17 : 50 덕안주유소-광명시민체육관
19 : 30 광명시민체육관-광명시청-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0 : 30 저녁식사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1 : 30 공연 및 소감 나누기
22 : 30 숙소 / 광명장애인종합복지회관
23 : 30 취침

○ 행진 2일차 : 4월 5일(일)
08 : 00 기상 및 세면
08 : 30 아침식사 / 광명장애인종합복지회관
09 : 30 형제자매 기자회견
10 : 00 2일차 행진시작 / 광명시민체육관-광명시청-성애병원-철산대교-구로3공단-수출의 다리-마리오아울렛-가리봉오거리
11 : 20 가리봉오거리-구로시장-구로고대병원-구로구청-구로시민공원(좌회전)-신도림 지하차도-신도림역
12 : 40 신도림역-영등포역-여의도공원
13 : 40 점심식사 / 여의도공원
14 : 00 여의도공원 출발-국회 앞-마포대교-공덕오거리
15 : 00 공덕오거리-충정로-광화문
17 : 00 광화문 문화제 시작

3. 행사

(1) 출발기자회견
○ 시간 : 오전 8시
○ 장소 : 분향소 앞

(2) 5일 광화문 국민 촛불문화제
○ 시간 : 오후 5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붙임자료 3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진실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4월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지우고 싶고 봄비가 내리면 하늘을 잠그고 싶은 봄이 불쑥 찾아들더니 4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4월은 두 배로 잔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올려야 하는 그날의 악몽들이 가슴을 긁어댈 것이야 짐작 못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기억 속에 아이가 찾아오니 피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악몽이 우리를 짓누를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하나마 제정된 특별법이 이렇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할 줄이야, 정부가 대놓고 돈을 들이댈 줄이야, 설마 몰랐습니다. 실종자를 가족 품에 안겨주겠다는 약속조차 이렇게 방치될 줄 몰랐습니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안에 아직 아홉 명의 실종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서만도 안 됩니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 바다 밖으로 건져 올릴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과 함께 결정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인양 결정조차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양을 할 수 있다고 정부도 확인했고, 해야 한다고 국민들도 말하는데 왜 인양한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인양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어서 빨리 인양을 결정하고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일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특별법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려면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해서 낱낱이 책임을 밝혀야 하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조차도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조사 대상인 기관과 공무원이 스스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해난사고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었을 거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안됐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참사들은 언제나 과거의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공포하십시오.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우리는 인양이 늦어지고 특별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저 우리 가족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해양수산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 언론들이 벌떼처럼 받아 적어 유포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짓이기고 있습니다. 아직 진실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돈을 흔들다니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생명과 돈을 거래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부는 가족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려고 배보상 따위의 말을 꺼냈겠지만 우리는 이미 1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년 4월 16일 대한민국이 침몰했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대한민국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작년 4월 16일 이후 다른 대한민국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의 국가, 진실과 정의를 향해 두려움 없이 한걸음씩 내딛는 사람들의 국가, 함께 기억함으로써 덜 아플 수 있도록 손잡는 사람들의 국가, 다른 대한민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진심은 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진은 그 진심들이 모두 인양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진은 그 길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들고 함께 걷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사진이지만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을 가슴에 품기가 여전히 힘겹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아직 밝혀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모욕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구간의 끝에는 분명히 정부 시행령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버렸습니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04.04.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